

의복디자인의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실루엣 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lothing Design Evaluation Instrument

昌原專門大學 衣裳科

副教授 李京姬

Dept. of Clothing, Chang-Won Junior College

Associate Prof: Kyoung Hee Lee

目 次

I. 序 論

II. 理論的 背景

III. 實證的 研究

IV. 結果 및 論議

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isual effects of clothing design.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1) to develop a clothing design evaluation instrument us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for the purpose of measuring visual responses with clothing design: 2) to identify the factor structure of the clothing design evaluation instrument: 3) to test the differences of perception to the clothing design depending on sex and knowledge about clothing design.

The major findings were;

1. 37 pairs of descriptors of clothing form were found to include five factor dimensions (total variance:62.1%). Five major factors were found:attractiveness, practicability, elegance, comfort, hardness and softness.

2. For the visual evaluation of silhouett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H-line was explained by the simple image. A-line was explained by the comfortable image. V-line was explained by the mature and refined image. X-line was explained by the attractive and feminine image and evaluated positively.

3. For the visual evaluation of observers, there were partly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sex and knowledge about clothing design in the observers' responses. But there were greater differences depending on sex than knowledge about clothing design in the observers' responses.

* 본 연구는 1990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I. 序 論

의복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전달매체로서 착용자의 내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비언어적 전달매체의 역할을 함으로서 자아실현의 수단인 동시에 무언의 언어로써 상징적 가치를 지녀 타인의 평가기준이 된다.

의복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관적인 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낼 수 있는 의미미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을 사용하여 의복에 대한 반응을 수량화하여 어의차를 규명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의미미분법이란 Osgood, Suci & Tannenbaum¹⁾에 의해 언어의 감정적 의미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 연구 발표된 이래 의류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어지고 있다.

의복에서 느껴지는 시각적 느낌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이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의미미분척도를 인용 및 수정·보완하여 사용해 왔으며,²⁻⁶⁾ Delong & Larntz,⁷⁾ 박혜선과 이은영^{8, 9)} 등의 연구에서는 의복에서 느껴지는 시각적 반응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를 개발하고 그 척도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인들을 주요인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그 평가요인을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의복에 대한 시각적 느낌을 수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Osgood & Suci¹⁰⁾가 개발한 의미미분척도에서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추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의복자극을 사진이나 선그림을 사용함으로써 그 표현방식이 평면적인 것에 불과하며 제시된 의복자극은 각 디자인 요소의 시각적 특징이 복합적으로 서로 관련되어서 의복의 전체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의복에 대한 시각적 평가는 의복의 시각적 형태와 관찰자 특성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동일한 의복이라 할지라도 관찰자의 특성에 따라 의복에 대하여 갖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¹¹⁻¹⁶⁾

그러나, 의미미분척도를 개발하여 의복의 시각적 반응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국

내에서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 언어의 의미와 문화권이 다른 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그 연구에 적합한 의미미분척도가 개발되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의복이 인체에 착용되어 그 이미지가 타인에게 전달된다고 볼 때 의복자극의 표현 방식은 입체적인 표현이 되어야 보다 실제에 가까운 의복의 이미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복식의 미적 특성은 신체적 특징, 의복의 전체를 나타내는 실루엣과 의복의 부분을 나타내는 디테일 등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어떤 디자인 요소보다 감정, 정서 등을 전달하여 심리적 효과를 좌우하는 것이며¹⁷⁾ 그 중에서도 실루엣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실루엣을 자극물로 하여 자유언어연상법에 의하여 형용어를 수집함으로써 의복디자인의 평가도구 개발을 하고자 하며, 의복디자인의 평가도구로서 사용된 의미미분척도가 어떠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요인 구조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실루엣의 이미지를 알아보고, 관찰자의 특성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규명해 보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정하였다.

II. 理論的 背景

1. 의복디자인에 대한 視知覺

Coren, Porac & Ward¹⁸⁾는 사람들이 동일한 자극을 대할 때라도 개인의 연령, 과거의 경험이나 기대 등에 따라 다르게 지각한다고 하였으며, Horn & Gurel¹⁹⁾에 의하면 자극정보에 대한 감수성의 정도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극을 지각하는 복합성의 정도는 지각자의 이해력과 성숙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하였다. 즉, 지각의 복합성의 정도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또는 추상적인 방법으로 관찰하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의복의 좋고 싫음을 평가할 때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특징이나 사실만을 인정하려고 하므로 반응을 기술할 때 모호한 표현을 배제

한다. 반면에, 추상적인 방법으로 의복을 관찰하는 사람은 특정한 의복 단서에서 많은 양상을 보고 가능한 많은 의미로 평가함으로써 의복에서 느껴지는 지각내용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Sailor²⁰⁾의 연구에서 의복디자인선에 대한 지각은 선의 요인;선의 방향, 특히 수직방향의 지각, 유행요인;유행, 특히 옷단서의 지각, 실루엣요인;수평, 수직선에 의해 형성되어진 외형 특성을 나타내는 선의 지각, 세부요인;의복의 사선 및 세부를 나타내는 선의 지각 등의 네 요인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의복에 대한 경험이나 훈련이 이러한 선의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er²¹⁾은 의복디자인과 선의 지각에 대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의복디자인의 시각적 상기(visual recall)의 문제를 연구하였는데, 의복디자인의 시각적 상기는 과거에 경험한 의복디자인을 생각해 내는 것으로 시각적 상기 능력은 의복에 관한 경험이나 훈련에 따라 높아진다고 하였다.

Delong²²⁾은 의복에 관한 형태 지각이 두가지 차원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즉, 의복의 형태를 하나로 포착하거나 부분의 집합으로 포착한다고 하는 차원(단일 형태의 지각—복합 형태의 지각)과 의복의 외면을 명확하게 한정된 것으로 포착하거나 불명확하고 희미한 것으로 포착한다고 하는 차원(한정적 지각—비한정적 지각)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단일 형태이면서 한정적인 지각일 수록 보다 명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미미분법에 의한 의복디자인의 시각적 평가

Osgood가 발전시켜 온 의미미분법은 수많은 개념들의 의미들을 적절하게 표현한 형용사와 그 반대적인 뜻을 지닌 형용사가 쌍을 이루어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형용사들간의 상호관계를 요인분석에 의해 분석하여 그 구성요인을 결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평가적 인자가 가장 지배적인 인자로서 변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역능인자, 활동인자가 그 다음으로 설명력이 큰 인자들의 순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평가적 인자가 가장 안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시각적 형태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소 불안정한 인자

로 지적되고 있다.²³⁾

Johnson, Nagasawa & Peters²⁴⁾는 의복스타일 차이에 따른 사회적 인상형성의 효과를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의복스타일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유행하고 있는 의복을 착용했을 때가 보다 사교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Whisney, Winakor & Wolins²⁵⁾는 동일한 의복이라도 사진과 선그림에 따라 소비자의 패션선호도가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자극의 표현방식이 시각적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자극의 표현방식에 따라 패션선호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투명, 광택 또는 구조적인 선과 같은 의복의 특수한 특징 때문에 특수한 스타일에 대한 시각적 반응은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의복에 대한 시각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Delong & Larntz²⁶⁾는 50쌍의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한 결과, 주요 구성요인이 평가인자, 활동인자, 역능 또는 강도인자로 나타났다.

Delong, Salusso-Deonier & Larntz^{13,20)}는 1981년 여성복에서의 12주간의 유행 변화가 지각자의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1983년에는 여성복을 사교복과 사무복의 두가지 용도로 나누어 남녀 대학생의 시각적 반응에서의 차를 조사하였다. 이 두 연구에서 의미미분법으로 자료를 모으고 주요인분석을 한 결과 인자를 크게 둘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인자는 선행연구⁷⁾에서의 평가인자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평가인자라 하였는데, 이는 의복에서의 구체적인 반응을 기록한 것으로 세 연구^{7,13,20)}에서 자극이나 연구대상에 관계없이 척도의 사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활동인자와 역능인자를 함께 묶어 정보인자라 칭하였는데, 이 인자는 선행연구의 두 인자들과는 내용이나 해석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이는 의복스타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栢田²⁷⁾에 의하면 부인복이 지각자인 남성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전달되어지는 지 유행의 진행단계별로 조사한 결과, 유행의 진행단계가 동일한 의복이미지의 유사성은 높으며, 진행단계가 다른 의복간의 유사성은 낮게 나타났다. 각 의복이미지를 요인분석한 결과, 이미지의 대부분은 기호적 인자, 현대적 인

자, 실용적 인자로 설명되었다.

中野愼子, 錢谷八榮子, 岡部和代 & 山明信子²⁵⁾는 의복디자인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진과 선그림에 대한 이미지 차이는 화려함으로 나타나 소재의 표현이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石塚純子, 加藤雪枚와 梶山藤子²⁶⁾는 의복디자인을 선그림으로 제시하여 이미지를 측정한 결과 기능성의 인자, 눈에 띄는 인자, 평가의 인자로 나타났으며, 착용에 의한 이미지는 평가의 인자, 기능성의 인자, 경량감의 인자, 따뜻함의 인자로 나타나 자극물 표현의 차이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나타내었다.

박혜선과 이은영^{8),9)}에 의해 개발된 의미분법에서는 평가인자, 활동인자, 역능인자가 주축을 이루고, Osgood & Suci,³⁰⁾ Delong & Larntz⁷⁾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elong & Larntz⁷⁾의 결과와는 달리 유행이 하나의 독립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었다.

홍병숙²⁷⁾은 양장과 한복의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양장과 한복의 요인구성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강혜원²⁸⁾은 상황에 따른 인상의 차원을 밝히기 위하여 남녀 관찰자 및 착용자에 따른 요인분석을 한 결과 4개의 분석에서 인상의 차원이 평가, 능력, 품위, 동조성, 친화, 화려함, 겸손함 등의 6개 요인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인상의 구조는 대체로 유사하다고 하였다.

3. 觀察者의 特性과 衣服디자인의 視覺的評價

의복에 대한 시각적 평가는 의복디자인과 관찰자의 특성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의복의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는 관찰자의 특성 중 성별요인과 교육적 특성 중의 하나인 의복에 대한 전공여부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Delong & Larntz⁷⁾는 의복디자인의 인지에 있어서 의복디자인, 상황, 관찰자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즉, 연령, 전공, 지역이 비슷한 남녀 대학생들이 여성복에 대한 지각 반응을 할 때 평가인자의 반응에서 남녀가 비교적 큰 차를 나타내었으나 활동성과 역능적인 평가를 포함한 정보적 인자에 대한 지각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¹⁹⁾

Dillon¹²⁾은 여성복 중 사무복에 대한 반응을 비교한 결과, 지각 경향을 지배하는 요인들이 서로 비호환을 발견하였고,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사무복에서 형식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양진¹⁴⁾은 의복에 대한 가치평가 연구에서 의복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는 남녀에 따라 유의한 차가 없었고, 단지 여대생이 남학생들보다 의복의 아름다움이나 실용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주관적인 감정에 덜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애¹⁵⁾는 유행단계가 다른 의복을 지각할 때 남학생이 여대생에 비해서 유행인지도 및 선호도와 평가인자 사이에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남녀의 지각 반응은 차이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안유인¹⁶⁾은 의복의 성적이미지와 상황적이미지의 인지에 있어서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남성일수록 여성보다 같은 의복을 보고 더 여성스럽게 느끼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Delong²⁹⁾은 디자인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의복은 지각 평가하는 능력이 커지고 지각 훈련후에는 의복에 대해 갖고 있는 좋고 싫은 선호도에 관계없이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지각하는 대상에 대해 갖게 되는 선호도에 관계없이 보다 분별적인 반응을 하였음을 나타내었다.

Baer¹¹⁾는 의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의복의 디테일이나 실루엣을 지각할 때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단지 전공집단이 의복을 다소 명확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전양진¹⁴⁾은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의복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데 주관적인 감정에 덜 좌우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권영애¹⁵⁾는 의류학 전공집단이 비전공집단보다 최신유행 스타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선호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의복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유행 변화에 대한 안목이 교육을 통해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였다.

Ⅲ. 實證的 研究

1. 研究問題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의복디자인의 평가도구개발을 위하여 자유언어연상법에 의해 형용어를 추출하여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고 그 요인구조를 밝힌다.

연구문제 2 : 실루엣의 이미지를 알아보고, 실루엣 유형별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3 : 관찰자의 특성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밝힌다.

2. 實驗節次 및 方法

1) 被驗者

의복디자인의 시각적 평가에 대하여 성별 및 의류학 전공여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피험자는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서 의류학 전공자 320명, 의류학이외의 전공자(여) 228명, 남학생 130명으로 총 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實驗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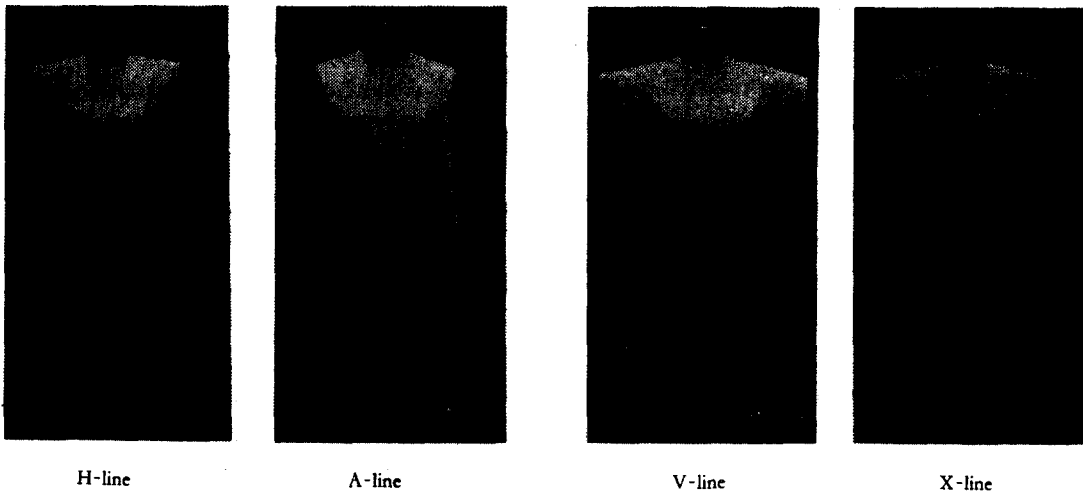
본 논문의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의복자극물과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의복자극물은 의미미분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어휘수집 및 시각적 평가를 위하여 제시되었고, 설문지는 의복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한 어

휘들로 구성되었다. 사용된 의복자극물과 의복디자인의 시각적 평가어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依服刺戟의 選定 및 製作

의복디자인의 시각적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자극변인으로 제시된 실루엣은 다종다양한 실루엣 중에 실용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의복의 실루엣을 선정하기 위해 1985년에서 1989년 사이에 발간된 Vogue, Burda, 莊苑, 멋 등의 의상전문지와 우리나라 기성복 카타로그에서 디자인을 무작위로 810점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디자인을 선그림으로 묘사하여 의류학 전공자인 대학원생 10명에게 분류시켜 본 결과, H-line 43%, X-line 22%, A-line 13%, V-line 8%, 기타 14%로 나타났으므로, H-line, A-line, V-line, X-line의 4종류의 실루엣을 의복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의복은 사람이 착용한 상태에서 관찰자에게 전달 되는 것이므로 실물에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의복자극을 제시하기 위하여 4종류의 실루엣을 [사진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형상별로 제작하여 인대에 착용시켜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사용한 인대는 여성의 표준치수에 가까운 7호 인대(동경마네킹 제작)이다. 실루엣 제작을 위해 사용된 의복 원형은 임원자,³⁰⁾ 박혜숙³¹⁾의 제도법을 사용하여 길(Bodice)을 제작하고 인대에 착용시켜 본 결과 박혜숙의 의복 원형이 적



[사진 1] 실루엣의 종류

합성이 좋게 나왔으므로 기본 원형으로 사용하였으며 깃광목으로 제작하였다.

(2) 意味微分法에 使用된 形容詞 蒐集

[사진 1]에 제시된 4종류의 실루엣을 인대에 착용시켜 의류학 전공자 83명에게 제시하여 자유언어연상법에 의해 형용사 수집을 하였다.

실루엣의 형상이 보다 선명하게 지각될 수 있도록 검은색 켈트지를 배경으로 하였으며 실루엣 자극과 관찰자와의 거리는 4~6m이었다.

관찰자는 4종류의 실루엣에 대해 즉각적으로 보고 느껴지는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형용사 중에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고 의미가 유사한 형용사는 가능한 제외시키고 이 중에서 반대어의 추출이 쉬운 형용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실루엣에 대한 의미공간을 더욱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사용된 의미미분척도를 포함하여 37개의 형용사를 선정하였다. 37개의 형용사는 자유언어연상법에 의해 27개, 선행연구에서 8개(Delong & Larntz⁷⁾:4개, 香川幸子⁸⁾:3개, 박혜선과 이은영⁹⁾:1개), 본 연구자가 2개를 택하여 구성하였다. 추출된 37개의 형용사에 대한 반대어는 선행연구^{9), 38), 39)} 및 반의어사전³⁷⁾을 참고로 하여 선정하였다. 반대어는 가능한 수집된 자료에서 그대로 추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반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수정하였다.

37쌍의 형용사쌍에 대하여 반대어의 적합성 및 실루엣 평가 어휘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의류학 전공자 62명에게 실루엣을 자극으로 제시하여 예비실험한 결과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37쌍의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였다.

관찰자들에게 제시할 때 형용사쌍들을 좌우에 무작위로 배치하여 7단계 평정법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자료를 수량화시키기 위해서 각 형용사쌍에 1~7점을 부여하였다. 왼쪽 극단에 위치한 형용사에 1점을 주고, 오른쪽 극단으로 갈수록 점수가 커져 오른쪽 극단에 표시된 형용사에 7점을 주었다.

3. 資料分析

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의 분석은 부산대학교 전

사계산소의 CYBER SYSTEM SPSSX Package를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연구문제별로 사용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의복디자인의 평가도구의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주성분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하고 Varimax방법에 의한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실루엣 유형별로 이미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방법을 사용하여 Scheffé검증을 하였으며, 성별 및 의류학 전공여부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사용하였다.

IV. 結果 및 論議

1. 실루엣 이미지의 意味構造

자유언어연상법에 의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37쌍의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하여 4종류의 실루엣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마음에 드는-마음에 들지않는, 보기좋은-보기싫은, 좋아하는-싫어하는 등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어휘들과 매력있는-매력없는, 멋있는-멋없는, 아름다운-추한 등의 미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휘들에서 요인부하치가 높게 나타나 매력성 요인이라고 하겠다. 요인 2는 소박한-사치스런, 평범한-특이한, 실용적인-심미적인 등에서 요인 부하치가 높게 나타나 실용성 요인이라고 하겠다. 요인 3은 어려보이는-나아들어보이는, 발랄한-점잖은, 품위있는-품위없는 등에서 요인부하치가 높게 나타나 품위성 요인이라고 하겠다. 요인 4는 편안한-불편한, 자유로운-부자유로운, 활동적인-비활동적인 등에서 요인부하치가 높게 나타나 편안성 요인이라고 하겠다. 요인 5는 여성적인-남성적인, 섬세한-대담한, 딱딱한-부드러운 등에서 요인부하치가 높게 나타나 경연성 요인이라고 하겠다.

5개의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1%이고, 이 중에서 매력성 요인과 실용성 요인이 공통변량의 70%를 차지하므로 실루엣의 이미지의 의미공간 내에서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요인분석의 결과, 오른쪽의 형용사와 상관을 이루고 있으면 정적인 방향의 요인부하치를 나타내고 왼쪽의 형용사와 상관을 이루고 있으면 부적인 방향의

(표 1) 실루엣 이미지의 요인분석

형용사쌍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마음에 드는 - 마음에 들지않는	.867	-.001	.119	.053	.059
보기좋은 - 보기싫은	.843	.058	.041	.082	.128
좋아하는 - 싫어하는	.833	-.062	.132	.075	.020
사고싶은 - 사고싶지않은	.812	.014	.103	.016	.009
매력있는 - 매력없는	.742	.338	.033	.140	.157
멋있는 - 멋없는	.713	.420	.014	.093	-.002
유행하고 있는 - 유행하고 있지않는	.689	.247	.085	.070	-.058
아름다운 - 추한	.681	-.265	-.007	.133	.346
세련된 - 촌스러운	.680	.349	.081	.008	-.072
우아한 - 천박한	.568	.238	-.242	.093	.441
소박한 - 사치스런	-.140	-.768	.097	.206	-.046
평범한 - 특이한	-.131	-.752	.135	.084	.154
강렬한 - 무난한	.244	.703	.012	-.092	-.215
화려한 - 순수한	.328	.692	.049	-.112	.104
눈에 띄는 - 눈에 안띄는	.403	.666	-.015	.053	.023
실용적인 - 심미적인	.135	-.602	.124	.385	-.140
단순한 - 복잡한	-.119	-.564	-.041	.224	-.230
고급스런 - 대중적인	.418	.534	-.275	-.127	.065
섹시한 - 섹시하지 않은	.461	.514	.144	.050	.093
현실적인 - 비현실적인	.348	-.427	-.036	.237	-.189
어려보이는 - 나이들어보이는	.214	-.110	.768	.174	.168
발랄한 - 점잖은	.298	.069	.766	.186	.105
귀여운 - 노숙한	.265	-.063	.747	.086	.207
위엄있는 - 겸박한	.289	.037	-.692	-.136	-.016
경쾌한 - 장중한	.256	-.091	.651	.401	.105
캐주얼한 - 포멀한	.032	-.126	.641	.376	-.095
품위있는 - 품위없는	.533	.106	-.537	-.135	.130
이성적인 - 감정적인	.174	-.267	-.501	-.127	-.308
편안한 - 불편한	.007	-.332	.241	.735	.143
자유로운 - 부자유로운	.049	-.282	.325	.723	.133
담담한 - 시원한	-.131	.015	-.226	-.684	-.076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151	-.171	.389	.630	-.113
간편한 - 거추장스러운	.111	-.498	.135	.575	-.085
여성적인 - 남성적인	.208	.135	.242	.210	.683
섬세한 - 대담한	.250	.017	.171	-.170	.629
딱딱한 - 부드러운	-.028	-.020	-.362	-.422	-.603
현대적인 - 고전적인	.471	.161	.098	.087	-.514
고유치	9.316	7.350	3.224	1.879	1.190
전체변량(%)	25.2	19.9	8.7	5.1	3.2
공통변량(%)	40.6	30.1	14.0	8.2	5.2

* — : 요인부하치 .40이상을 표시함.

요인부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요인 1에서는 매력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향을, 요인 2에서는 소박하고 실용적인 경향을, 요인 4에서는 불편하고 비활동적인 경향을, 요인 5에서는 남성적이고 딱딱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서 요인 1의 매력성 요인은 Osgood & Suci¹⁰⁾, DeLong & Larntz⁷⁾, 장동환³⁰⁾, 박혜선과 이은영⁹⁾, 강혜원과 이주현²⁸⁾ 등의 평가적 요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2의 실용성 요인은 박혜선과 이은영⁹⁾의 연구에서의 요인 3인 역능인자와 유사하고, 요인 3의 품위성 요인은 강혜원과 이주현²⁸⁾의 연구에서의 요인 3인 품위 요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 4의 편안성 요인은 박혜선과 이은영⁹⁾의 연구에서의 요인 2인 활동인자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5의 경연성 요인은 Osgood & Suci¹⁰⁾, 장동환³⁰⁾, 박혜선과 이은영⁹⁾ 등의 연구에서의 역능인자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적 내용을 지니고 있는 매력성 요인

이 가장 지배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요인에 걸쳐서 유의미한 요인 부하치를 지니고 있어 다소 불안정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평가적 요인이 가장 안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각적 형태에 대한 연구에서 다소 불안정한 인자로 지적되고 있다²⁸⁾고 한 이론과 일치되고 있다.

2) 실루엣 類型別 이미지

실루엣 이미지의 의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얻어진 각 요인에 대하여 실루엣간의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사용하여 일원변량분석방법과 Scheffe검증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든 요인에 대한 실루엣간의 시각적 평가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e 검증 결과를 보면 매력성 요인, 실용성 요인, 품위성 요인에서 네 종류의 실루엣간에 모두 유의적인 차이

(표 2) 각 요인에 대한 실루엣 유형별 차이

요 인	실루엣	\bar{x}	F값	Sheffé ^a
요인1 (매력성)	X	-.541	136.840***	a
	V	-.095		b
	H	.185		c
	A	.451		d
요인2 (실용성)	V	-.686	434.755***	a
	X	-.192		b
	A	-.025		c
	H	.903		d
요인3 (품위성)	X	-.523	214.469***	a
	A	-.322		b
	H	.264		c
	V	.581		d
요인4 (편안성)	A	-.486	111.869***	a
	H	-.019		b
	X	.044		b
	V	.461		c
요인5 (경연성)	X	-.566	329.281***	a
	A	-.452		a
	H	.354		b
	V	.663		c

*** $p < .001$ \bar{x} : 요인점수

A : Scheffé의 검증 결과 $p < .05$ 수준 이상에서 실루엣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문자의 순서는 점수의 크기 순서와 같다.

가 나타났다. 편안성 요인은 세 종류의 실루엣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H-line과 X-line 사이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연성 요인은 세 종류의 실루엣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X-line과 A-line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서 네 종류의 실루엣이 각각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1에서는 요인점수가 낮을수록 매력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X-line이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고, A-line은 가장 덜 매력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2에서는 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실용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H-line이 가장 실용적인 이미지를, V-line은 비실용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 3에서는 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품위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V-line이 가장 품위있는 이미지를, X-line은 덜 품위있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요인 4에서는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비활동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V-line이 가장 비활동적인 이미지를, A-line이 활동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5에서는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딱딱함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V-line이 가장 딱딱한 이미지를, X-line이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형용사쌍에 대한 실루엣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실루엣 유형별 이미지의 특성을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H-line은 무난한, 수수한, 단순한 등으로 평가되어 단순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line은 편안한, 자유로운, 활동적인 등으로 평가되어 편안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실루엣에 비하여 두드러진 시각적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V-line은 세련되고, 노숙한, 품위있는 등으로 평가되어 노숙한 세련된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line은 다른 어떤 실루엣보다 마음에 들고, 좋아하며, 사고싶어하는 실루엣으로, 또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실루엣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현재 유행되고 있다고 인정한 의복이나 또는 좋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복일수록 그 의복에 대한 평가를 호의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을 매우 적합한 의복으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좋아하고 있다고 한 권영애¹⁹⁾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복디자인의 측면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때에는 X-line과 A-line을, 권위를 나타내고 강한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때에는 V-line을, 평범하고 수수한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때에는 H-line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표 3) 실루엣 유형별 이미지

실루엣	이 미 지	실루엣	이 미 지
H-line	소박한, 평범한, 무난한, 수수한, 눈에 안띄는, 실용적인, 단순한, 대중적인, 색시하지않은, 현실적인, 간편한, 딱딱한 (단순한 이미지)	A-line	편안한, 자유로운, 시원한, 활동적인, 여성적인, 부드러운 (편안한 이미지)
V-line	멋있는, 세련된, 특이한, 강렬한, 눈에 띄는, 고급스런, 나이들어 보이는, 노숙한, 위엄있는, 포멀한, 품위있는, 이성적인, 불편한, 부자유로운, 남성적인, 딱딱한, 현대적인 (노숙한, 세련된 이미지)	X-line	마음에 드는, 보기좋은, 좋아하는, 사고싶은, 매력있는, 멋있는, 유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눈에 띄는, 색시한, 어려보이는, 발랄한, 귀여운, 경쾌한, 여성적인, 섬세한, 부드러운 (매력있는, 여성적인 이미지)

생각된다. 그리고, A-line과 X-line은 비슷한 이미지를 주지만 여성적이면서도 활동적인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때에는 A-line을, 좀 더 매력있고 섬세한 여성스러움의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때에는 X-line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3) 觀察者 特性別 실루엣의 이미지

(1) 觀察者의 性別에 따른 이미지

실루엣의 시각적 평가에 있어서 요인별로 요인점수를 사용하여 남녀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H-line은 편안성 요인과 경연성 요인에서 남녀간의 시각적 평가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H-line을 부자유스럽고 남성적인 이미지로 평가한 반면, 남학생은 자유롭고 여성적인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이는 H-line에 대하여 여학생의 경우에 남성복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실루엣으로 받아들여 다른 의복형태보다 딱딱한 이미지로 평가한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H-line의 의복형태보다는 여성복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의복에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A-line은 매력성 요인, 실용성 요인, 품위성 요인, 경연성 요인에서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편안성 요인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녀 모두 A-line을 여성적이고 편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여학생은 A-line을 어려워하는, 발랄한, 귀여운 등의 이미지를 지닌 실루엣으로 평가한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나이들어보이는, 점잖은, 노

숙한 등의 이미지를 지닌 실루엣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디자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평소의 여성복에 대한 다양한 연상을 할 수 있는 반면, 남학생은 A-line의 의복자극물 형태에서 허리선 없이 풍성한 스타일은 나이든 사람이 대체적으로 많이 착용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연유된 결과로 보인다.

V-line은 매력성 요인, 실용성 요인, 편안성 요인, 경연성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품위성 요인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 모두 V-line을 노숙한, 위엄있는, 품위있는, 현대적인, 부자유로운 등의 이미지를 지닌 실루엣으로 평가하였다. 경연성 요인에서 남녀간의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V-line을 남성적이고 대담한 이미지로 평가한 반면, 남학생은 V-line을 여성적이고 섬세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이것은 남학생의 경우 의복자극이 여성복이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되며, 여학생의 경우는 V-line의 의복형태가 어깨부분이 강조되어 보다 남성적이고 대담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X-line은 모든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X-line을 보다 더 마음에 드는, 보기좋은, 좋아하는, 매력있는, 심미적인, 발랄한 등의 이미지를 지닌 실루엣으로 평가하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허리가 강조된 X-line을 보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표 4) 성별에 따른 실루엣의 시각적 평가

실루엣 요인	H-line			A-line			V-line			X-line		
	여 (\bar{x})	남 (\bar{x})	t값	여 (\bar{x})	남 (\bar{x})	t값	여 (\bar{x})	남 (\bar{x})	t값	여 (\bar{x})	남 (\bar{x})	t값
매력성 요인	.193	.150	.45	.354	.844	-4.24***	.001	-.479	4.77***	-.422	-1.027	7.47***
실용성 요인	.927	.805	1.54	-.099	.278	-4.56***	-.582	-1.111	6.01***	-.261	.086	-3.40***
품위성 요인	.228	.411	-1.87	-.458	.234	-7.00***	.605	.482	1.16	-.461	-.779	3.77***
편안성 요인	.037	-.247	2.85**	-.468	-.561	.87	.516	.239	2.79**	.132	-.316	4.38***
경연성 요인	.445	-.015	5.72***	-.488	-.307	-2.45*	.766	.246	5.83***	-.639	-.267	-4.42***

*p<.05 **p<.01 ***p<.001 \bar{x} : 요인점수

이상의 결과로 보아 여학생은 여성복에 대하여 의복자극 형태에 별로 좌우되지 않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은 남성복에서 볼 수 있는 H-line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의복자극 형태에 관련되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복에 대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여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같은 의복을 보고 남성일수록 여성보다 더 여성스럽다고 느끼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한 안유인¹⁶⁾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평소에 많이 접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보다 분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2) 觀察者의 衣類學 專攻與否에 따른 이미지

(표 5)에 의하면 각 실루엣에 대하여 의류학 전공 여부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차이는 성별에 의한 차이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H-line에서 실용성 요인, 품위성 요인, 경연성 요인에서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전공 집단이 비전공집단보다 H-line을 실용적, 이성적, 남성적인 등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비전공집단은 심미적, 감정적, 여성적인 등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전공집단이 의복자극물의 형태에 대하여 여성복이라는 선입견이 덜 배제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A-line에서 두 집단간에 전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여학생들은 전공여부에 관계없이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line에서는 실용성 요인과 경연성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전공집단이 비전공집단보다 V-line을 보다 실용

적인, 남성적인 등의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비전공집단은 전공집단보다 V-line을 심미적인, 여성적인 등의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X-line에서는 실용성 요인에서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공집단이 비전공집단보다 X-line을 유행하고 있는, 화려한, 눈에 띄는 등으로 평가하고 있어 보다 감각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비전공집단은 단순하고 평범한 이미지로 평가하고 있어 의복자극의 형태 표현에서의 단순함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 결과 전공집단이 비전공집단보다 의복형태의 시각적 평가에 있어서 보다 분별력 있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의복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보다 객관적이면서 분별적인 평가를 한다고 한 Delong²⁰⁾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공집단이 비전공집단보다 유행스타일에 대하여 보다 분별적으로 지각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결과와도 일치되고 있다.

V. 要約 및 結論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의복디자인의 평가도구로 개발된 의미미분척도는 37쌍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복자극으로 제시된 실루엣 이미지의 요인구조는 요인 1:매력성 요인, 요인 2:실용성 요인, 요인 3:품위성 요인, 요인 4:편안성 요인, 요인 5:경연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5) 의류학 전공여부에 따른 실루엣의 시각적 평가

실루엣 성별 요인	H-line			A-line			V-line			X-line		
	전공 (\bar{x})	비전공 (\bar{x})	t값	전공 (\bar{x})	비전공 (\bar{x})	t값	전공 (\bar{x})	비전공 (\bar{x})	t값	전공 (\bar{x})	비전공 (\bar{x})	t값
매력성 요인	.137	.268	-1.75	2.91	.438	-1.82	-.045	.058	-1.31	-.424	-.418	-.09
실용성 요인	1.020	.804	3.56***	-.130	-.058	-1.13	-.519	-.665	2.10**	-.420	.049	-5.09***
품위성 요인	.309	.120	2.47*	-.490	-.415	-1.04	.605	.606	-.00	-.465	-.455	-.13
편안성 요인	-.017	.108	-1.39	-.442	-.502	.83	.504	.532	-.40	-.153	.105	.59
경연성 요인	.600	.240	5.14***	-.519	-.446	-1.13	.903	.584	4.13***	-.699	-.559	-1.84

*p<.05 **p<.01 ***p<.001 \bar{x} : 요인점수

2) 4종류의 실루엣을 각각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line: 단순한 이미지, A-line: 편안한 이미지, V-line: 노숙하고 세련된 이미지, X-line: 매력있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3) 관찰자의 성별에 따른 실루엣 평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일한 의복형태일지라도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여성복을 더욱 여성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는 의복자극물이 여성복이라는 선입견을 지니고 평가하고 있어 여성에 대한 개념과 여성복에 대한 개념이 복합되어 더욱 여성스럽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관찰자의 의류학 전공여부에 따른 실루엣 평가와의 관계를 보면, 성별에 의한 차이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의복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전공집단이 비전공집단보다 의복형태를 보다 분별력 있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전공집단은 전공집단에 비하여 의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복이라는 의복자극물 형태에 관련되어서 습관적 반응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전공집단은 사실에 입각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의복디자인이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디자인 선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의복디자인에 대한 이미지는 다양한 소비자층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므로 의복선택시 도움을 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연구 대상이 대학생이라는 교육수준과 20대라는 연령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색, 재질에 대한 시각적 평가도 함께 측정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의복디자인의 평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본 연구는 의복디자인의 평가도구를 표준화하는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1) Osgood, C.E., Suci, G.J., & Tannenbaum, D.H., The measurement of meaning(4th ed.),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1978.
- 2) Conner, B.H., Peters, K., & Nagasawa, R.H., Person and Costume: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1), 1975, pp.32~41.
- 3) Johnson, B.H., Nagasawa, R.H., & Peters, K., Clothing Style Differences: Their Effect on the Impression of Sociabil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1), 1977, pp.58~63.
- 4) 이인자 · 송선옥, 의복과 인물이 첫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 1982, pp.27~38.
- 5) 栉田 庸, 婦人服のイメージ評價に關する調査 研究(1) — 男子大學生による婦人服のイメージ評價のついて —, *纖維製品消費科學誌*, 24(6), 1983, pp.43~54.
- 6) 小林 茂雄, 被服のイメージと印象形成に關する — 考察, *共立女子大學家政學部紀要*, 34, 1988, pp.93~100.
- 7) Delong, M.R., & Larntz, K., Measuring Visual Response to Cloth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5(8), 1980, pp.281~293.
- 8) 박혜선 · 이은영, 의복에 대한 의미분척도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논문집*, 7, 1982.
- 9) 박혜선 · 이은영, 의복에 대한 의미분척도의 구성요인 추출, *서울대학교, 가정대학논문집*, 9, 1984.
- 10) Osgood, C.E., & Suci, G.J., Factor Analysis of Mean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50(5), 1955, pp.325~339.
- 11) Baer, M., Visual Recall of Dress Design Determined by Perceptual Sty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5), 1979, pp.292~303.
- 12) Dillon, L.S., Business Dress for Women Corporate Professional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2), 1980, pp.124~129.
- 13) Delong, M.R., Salusso-Deonier, C., & Larntz, K., Use of Perceptions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ini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4), 1983, pp.327~336.
- 14) 전양진, 의복에 대한 가치 평가, *서울대학교 대*

- 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15) 권영애, 의복의 유행단계에 따른 지각반응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16) 안유인, 현대 여성 일상복의 성격이미지와 상황적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17) Horn, M.J., & Gurel, L.M.,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3rd ed.), Boston:Houghton Mifflin Co., 1981, pp.295~296.
 - 18) Coren, S., Porac, C., & Ward, L.M., *Sensation and Perception*, New York:Academic Press, 1979, p.403.
 - 19) Horn, M.J., & Gurel, L.M., op.cit., pp.178~179.
 - 20) Sailor, P.J., *Perception of Line in Clothing, Perceptual and Motor Skills*, 33(3), 1971, pp.987~990. 재인용, 神山進, 被服心理學, 東京:光生館, 1984.
 - 21) Delong, M.R., *Analysis of Costume Visual Form, Journal of Home Economics*, 60(10), 1968, pp.784~788.
 - 22) Osgood, C.E., Suci, G.J., & Tannenbaum, D.H., op. cit., p.300.
 - 23) Whitney, A.J., Winakor, G., & Wolins, L., *Fashion Preference:Drawings versus Photograph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2), 1979, pp. 138~150.
 - 24) Delong, M.R., Salusso-Deonier, C., & Larntz, K., *Comparison of Visual Responses of Female Observers to Clothing over Tim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3, 1981, pp.299~309.
 - 25) 中野慎子, 錢谷八榮子, 岡部和代, 山各信子, 寫眞とデザイン畫によるイメージの相違, 日本衣服學會誌, 30(1), 1986, pp.6~12.
 - 26) 石塚純子, 加藤雪枝, 楢山藤子, 各種デザインにおける着裝イメージ, 日本家政學會誌, 38(4), 1987, pp.321~332.
 - 27) 홍명숙, 의미분별척도법에 의한 양장과 한복의 이미지 비교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2(3), 1984, pp.373~382.
 - 28) 강혜원·이주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I) — 한복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14(1), 1990, pp.31~43.
 - 29) Delong, M.R., *Clothing and Aesthetics:Perception of Form,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5(4), 1977, pp.214~224.
 - 30) 임원자, 의복구성학, 교문사, 1984.
 - 31) 박혜숙·이명희, 서양의복구성, 수학사, 1986.
 - 32) 香川幸子, シルエットのイメージと體形への影響について, 文化女子大學研究紀要, 19, 1988, pp. 85~86.
 - 33) 장동환, 한국어의 의미론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9, 1964, pp.191~205.
 - 34) 박영순, 의미미분척도법에 의한 디자인 평가도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5.
 - 35) 김광해偏, 유의어·반의어사전, 도서출판 한샘, 1987.